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구원의 여정      성경: 스가랴 8장 1-8절

Tag: 구원,역사,나라,여정,구약성경,스가랴

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슌8:1-8)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일관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덜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의 지향성. 문화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문화가 무엇이 더 좋은 곳인가를 정해 준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지향성은 물론 천국에 대한 지향성이다.

다음으로 구원이 가지는 지향성이란 회복에 대한 지향성이다. 물론 회복이란 궁극적으로는 에덴동산에 대한 지향성이다. 그런데 에덴동

산은 과거를 향한 지향성이고, 천국은 미래를 향한 지향성이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U자형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구원이란 여러 가지 상태로 표현되긴 하지만,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가난한 것에서 부요한 것으로, 궁핍한 것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무미건조함에서 즐거움으로 지향해 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기독교적 구원이란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성도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나 존엄성에 대한 감각이나, 고귀함에 대한 감각도 갖추게 되어 어엿한 사람됨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린다. 비록 몸은 나이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삶의 태도만큼은 더욱 고결함을 이루어 갈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4:16)**

그러나 구원이란 아무런 고통도 번뇌도 가슴아픔도 없이,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저주도 없는 상태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끼셨고 표현하셨던 그 모든 분노나 미움이나 가슴아픔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고통과 번뇌, 질병이나 가난, 분노나 미움으로부터의 해방은 당연히 구원이다. 그러나 구원 받았으니 그런 것들은 결코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은 아니다.

에덴동산이라고 해서 놀고 먹기만 하는 곳은 아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모든 동식물까지 다스리는 수고를 했었다. 그곳에서도 유혹이 있었고, 마귀도 천사들 중에 하나였지 않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구원의 여정에는 십자가와 희생과 섬김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한 순간 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 아닌가? 소중한 것을 지켜 내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일구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허랑방탕하는 것은 너무도 쉽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할 뿐 나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진실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결코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말하기를

‘비록 내가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또한 나는 그분이 하늘위에 앉아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히려 인간은 시간안에서 모든 것을 괴로워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쩌면 그가 처한 역사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였  
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촛불이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저마다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폴란드 출신 유대인 사상가로 1938년 베를

린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나치가 폴란드 출신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추방하자 잠시 폴란드에 머물다 런던으로 떠났다. 독일의 폴란드 점령과 대학살이 있기 두 달 전이었다. 헤셀은 나치의 손아귀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내 동족들이 (나치의 영광을 위해) 타 죽어간... 그 불길에서 건짐받은 타다 남은 나무’라고 표현했다.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슌3:2)

...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암4:11)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 얼마든지 불에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겨졌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식구들은 불에 타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모든 삶의 처절함 때문에 반쯤은 넋이 나간 상태로 아직은 남아있는 불꽃을 꺼뜨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인생이 웬지 모르게 의미있어 보이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된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도 충격적인 경험이지만, 그런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의미있게 하는가?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은 성전산을 말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 산이었던 곳인데 그 산을 시온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부른다.

-시온을 위한다는 말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는 뜻이다.

-그들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외국에 팔려갔지만,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상 이상으로 괴롭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열 받으셨다(질투)하셨다.

3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시온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회복하리라는 뜻이다.

-이미 지휘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계시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룩한 은총을 베푸시기로 하셨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리의 성읍을 열망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다. 진리의 성읍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읍을 말한다. 그 반대말은 마귀로 인한 거짓말과 계략과 음모와 모략이 가득한 성읍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모든 곳. 그곳에는 진리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영혼, 그 영혼에는 진리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가정, 그 가정은 방마다 진리고 가득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흥건한 교회, 그 교회는 진리가 풍년이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이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거룩성이 회복되면 영광도 회복된다. 거룩함의 목적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하심이 아니다.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은 거룩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복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4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 를 잡을 것이요

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6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장수를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 놀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남은 백성들이 신기해 할 것이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실 것이다.

7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겠다는 뜻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악의 근원이라고 믿었다. 그들만 모든 나라에서 제거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독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니 독일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 세계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틀렸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셔야 구원이다.

-어떤 사람은 갑질하는 부자 집안을 샅샅이 털어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모조리 박살내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부자들의 갑질을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갑질하는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고 세상은 갑질하는 자가 많을수록 더 나빠

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셔야 구원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찬양예배〉

제목 : 효과적인 양육      성경: 신명기 6장 4-13절

Tag: 양육, 교육, 본성, 제자훈련, 리더훈련, 구약성경, 신명기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  
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  
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를 잊지 말고

13 네 하나님 여호위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이니라 (신6:4-13)

양육과 본성에 대해서 두 진영이 치열하게 싸워왔고, 앞으로도 이런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논쟁에 힘입어 학문은 발달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또한 시시때때로 바뀌어 간다는 점.



여론이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바뀌고 그에 따라 인재를 양육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효과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차이는 존재하고, 지역의 차이도 존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문화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라는 점.

요즘은 다시금 종교적 차이로 인한 교육 효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은 ;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 훈육한다. 양육한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임. 부모의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바이블 스토리텔링)이 가장 효과적이다.

양육을 통한 본성의 스위치를 켜라.

아이를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준비된 것을 아이 앞에 펼쳐 놓으면 아이의 본성에 대한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면 아이는 배우게 되고 한번 배운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 유전자는 양육을 통해 들어오는 단서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본능이란 학습과 대립하지 않는다.
- 본능이란 학습을 통해서 길들여진다.
- 환경이란 본능을 감각을 켜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한다.
- 양육은 타이밍이다.
- 개인의 본성은 확정되지 않은 재료에 불과하다. 그것을 주조하고 변형하는 것은 사회적 요소이다.
-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본성에 크게 의존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료들의 의식과 관습에도 크게 의존한다. (부모와 또래집단의 영향)

-문화의 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어떤 문화는 분명 더 우수한 마음을 생산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다.

-문화를 만드는 것은 종교다.